

고흥군, 제13회 고흥우주항공축제 성공적인 개최 준비

‘별난 우주과학 스토리가 쏟아지는 우주여행’ 주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고흥군은 지난 3월 27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제13회 고흥우주항공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2명의 위원이 참석해 오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고흥우주항공축제 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우주항공축제는 ‘별난 우주과학 스토

리가 쏟아지는 우주여행’을 주제로 신비로운 우주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주고, 우주항공·과학 관련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구성된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항인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개최됨에 따라 지역민과 관광객이 누리호의 성공발사를 함께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고흥군은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

되는 신바람 나는 축제로 개최하기 위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축제로 방향성을 잡고 축제 현장에서 농수특산물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와 홍보·판매부스를 통한 오프라인 판매를 동시 진행해 고흥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잠재적 고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유재홍 위원장은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우주항공축제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군민과 하나 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축제기간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



가 만족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하며 성공적인 축제 개최

의지를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 승월마을 ‘봄 꽃 여행, 여수 봄 꽃으로 물들다’ 개최

내달 1일 오전 11시~저녁 8시까지

여수 돌산읍 승월마을에서 내달 1일 벚꽃축제 ‘봄 꽃 여행, 여수 봄 꽃으로 물들다’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지역 주민들과 직접 기획한 청년거리문화화합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돌산의 빼어난 풍경으로 유명한 승월마을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다.

승월마을 벚꽃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개최된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강강술래, 전통놀이 등 문화마당을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담았다.

특히, 승월마을 내 다랭이 마을길을 탐방하며 토마토를 직접 따보는 이색적인 마을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며, 선착순 700명을 모집해 화관이나 꽃팔찌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부스도 준비된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프리마켓과 먹거리 장터도 열려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시는 벚꽃축제에 이어 거문도 삼산면, 여문광장, 국동 수변공원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올해 청년거리문화화합마당 행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이 정성을 다해 축제를 준비했다”며 “놀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한 만큼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해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승월마을은 호수를 배경으로 형성된 벚꽃터널과 봄꽃으로 여수의 대표 꽃길 명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번 주를 기점으로 벚꽃이 만개해 꽃구경을 나온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김현근 기자

순천시, 전국 최초로 위원회 청년위원 20% 의무제 시행

청년 위원 확대도 시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순천시는 4월부터 시정의 모든 분야에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 위원회 위촉직위원의 20%를 청년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분

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 청년은 19세부터 39세로 6만9천 명이며, 전체 인구의 25.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미래를 책임질 청년의 시각에서 새로

운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개선을 제안하도록 위원회에 청년 비율 20%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시 위원회 186개 중 청년위원 20% 이상인 위원회는 7개에 불과하여 시는 2024년 하반기까지 청년위원 비율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74개까지 늘리고, 2026년까지 13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통상 2~3년인 위원 임기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청년위원 비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다양한 분야에 청년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여러 분야의 청년들이 시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시정을 이끄는 동반자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지속 가능한 관광 브랜딩 위한 민관협업 추진

제1회 광양시관광협의회 총회 개최...2022 업무추진 실적 및 2023 계획, 결산 및 예산(안) 등 승인



광양시가 28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귀식 광양시관광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광양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이귀식 협의회장과 정인화 광양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사무감사 결과 보고,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 결산 및 예산 승

인 순으로 이어졌다.

협의회는 관광관광 브랜딩을 목표로 ‘함께 그린(GREEN) 광양 웰린지’, 관광·서비스업 역량 강화 아카데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기획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제22회 광양매화축제에서 협의회가 주관한 ‘건강 쏘깁 in 매화축제’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ESG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는 4월에는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관광마인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총 4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의식업체 위생 식문화 구축 △관광양관광 기념품 제작 △내고장 관광 홍보요원화 △인플루언서 초청 팬우 △감성 자극 포토존 설치 등 다각적인 사업을 펼쳐나간다.

이귀식 협의회장은 “광양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관광자원을 잘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지속 가능한 관광 브랜딩 등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보성군,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합니다!’ 캠페인

보성군은 지난 27일부터 민원인 친절 응대 일환으로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합니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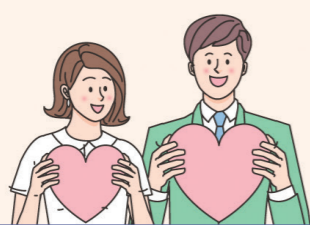
김철우 보성군수와 800여 공직자가 함께하는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합니다!’ 캠페인은 청사 광장, 복도, 사무실 등에서 민원인이 낮설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밝은 분위기의 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행복한 보성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 김 모 씨는 “인사 한마디로 인해 청 내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고, 주민 친절서비스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친절의 기본은 어디서나 반갑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다.”라며 “서로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 실천이 일상 습관으로 이어져서 마주치는 분들 모두가 행복한 보성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매주 수요일 ‘직원 친절 다짐의 날’을 지정해 친절 실천 다짐문 낭독, 친절 구호 제창 등을 하며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보성=김태순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